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헌

발행인 : 신성종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

92년도 인사 명단 확정 발표

당회 · 제직회 · 위원회 · 당회기관 · 교회학교 · 찬양대

교회는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8시 30분 당회실에서 11월 정기당회를 열어 1992년도에 봉사할 15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도, 그리고 14개 당회 기관의 부서장, 제직회 임원, 33개 교회학교 교사, 11개 찬양대 대원 임명을 승인했다.

92년도 인사 배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교회 상임 직원은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고, 인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감사가

감사위원회로 승격되었다. 또 교회학교 부분에서는 세례부가 신설되어 32개에서 33개 교회학교로 확장되었으며, 교구장 유교 지역인 제2교구(고 김원선 장로)에 제12교구의 김재명 장로가 파견되어 교구장을 맡도록 하였고, 제16교구장은 윤성철 장로 대신 최무길 장로가 맡도록 허락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회 직원들도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새롭게 채용 하기도 하였는데, 비서실 겸 기획

조정실장을 이종국 장로, 사무국장을 이태규 장로, 관리국장을 오진국 장로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관리국 자산과에 최성철, 경리과에 박경아, 관리과에 양지원, 기획조정실 출판 및 인쇄과장에 정정주 집사, 사무국 행정과장에 김차철 집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새롭게 임명된 각 부서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 원 회

당회서기: 윤명식 부서기: 이종국

위원회	위원장	지도	위 원
예 배	김은호	윤용규	김방진, 박인세, 송환창, 문홍구, 김천채
찬 양	이 훈	송태근	11개 찬양대장 전원
교 구	손동운	최인근	17개 교구장 전원
제1교육	송기홍	안경소	교회학교 제1교육위 산하 부장 전원
제2교육	강은원	정기봉, 강은원	교회학교 제2교육위 산하 부장 전원
제3교육	조선근	김성윤	교회학교 제3교육위 산하 부장 전원
전 도	최상규	김해규, 최상규	김경철, 김종구, 최무길
세계선교	남선우	김창수, 남선우	최석주, 김영삼, 김의철, 조인제, 김천채, 윤인현, 하대선, 이병학
구 제	박치민	신표근, 박치민	김경철, 박인세, 강도용, 김재균
건 축	노광현		이태규, 윤명식, 김영개, 우기전, 오진국, 최상규, 오정현, 이창호
재 정	김영개		윤명식, 정하우, 하대선, 오정현, 송환창, 김영길
행 정	하대선		이태규, 마성락, 오진국, 박관영, 김영길, 김재명
감 사			안익태, 김광남, 김의철, 윤성철
인 사	당회장		윤명식, 정하우, 김영개, 하대선, 손동운, 김차생
기 획	정하우		윤명식, 이종국, 김영개, 김차생, 이병학, 하대선, 박승준, 남선우, 서동석, 손경수, 이 훈

당 회 기 관

부서명	부서장	지도	위 원
기도원	김방진		
충헌동산	마성락		
유치원	강순용	김철자	
출 판	손경수	조동원	윤명식, 오진국, 박승준, 이종국
유아원	박인세	장혜순	
장학회	우기전		이태규, 최대원, 김광남, 이종국
성경연구원	김차생	이조웅	김재명, 부지도: 김태준
도서관	오태희	최인근	신표근, 김광국, 조동원
상담실		이두란	
스데반회	윤명식	신표근	
권사회	정하우	최순복	
한국교회성장연구원	김재명	이조웅	
한국교회재정지원위원회	김성윤	부지도: 김희수, 김태준	

제직회

회 장 : 신성종 목사
서 기 : 박인권
부 서 기 : 황의만, 김구형, 이상석
회계부장 : 김영개
일반회계 : 송환창 특별회계 : 김영길

충헌프리즘

○ 우리 교회 갈릴리오는 평일에 성도들 가정의 결혼식이 많이 거행된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게는 세 건, 많게는 열 건 이상이 된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신성한 예배당에서 목사의 주례와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교회당 주변 뜰에는 담

배공초가 널려 있고 분명히 "금연"이란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담배를 피는 불신자들이 일부 보인다. 물론 하객들 모두가 크리스찬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결혼식을 청원하는 신랑, 신부 성도의 가정에서는 사전에 결혼식장은 거룩한 예배당임을 주지시키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청탁장에 기재해서라도 복된 축복일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도서관에 신간이

많이 들어왔다. 항상 열려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여 경건 서적을 탐독하고, 신앙 성숙에 이바지 하도록.

○ 철야기도회(저녁 10시 이후) 장소가 교육관 107호(사랑부실)에 상설되어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젠 온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따뜻하게 꾸며졌다. 많은 성도들의 이용을 바란다.

○ 매주일 우리 교회는 봉사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비록 밥은 아니더라도 국수로 끼니를 제공하는데, 무려 5천명의 성도가 참여한다는 관리국 실무자의 얘기다.

식당 질서가 잘 되어 있어 별 혼잡은 없지만, 먹고난 그릇의 설거지가 큰 문제란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윤번제로 봉사는 하고 있지만, 일이 밀릴 때는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도들의 적극적인 봉사 참여로 식사 뒤끝의 깨끗함과 상쾌함이 여운으로 남길 바란다.

카메라 쏠점



▲11월 24일에 성경연구원 제2학기 수료식이 있었다.

고3 입시생 위한 특별기도회 12월 15일 찬양예배 후 본당서

우리 교회는 본 교회 고3학생 이미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와 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특별 기도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입시생을 위 회를 오는 15일 찬양예배 후 본당 한 기도회를 가져오고 있는데, 12 에서 갖기로 하였다. 이날 기도회 일에 있을 금요기도회는 학부모 중 는 신성종 담임목사의 특별 메시 심으로 갖고, 15일에 있을 기도회 지가 있는 후 부목사 및 장로들이 는 학생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 수험생 개인 개인마다 특별 기도 다.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 를 해주기로 했다. 모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12월 행사 계획

- ◆ 1992년도 직분자(서리집사) 임명 : 12월 1일(주일) IV부예배시
- ◆ 교회학교 교사 임명 : 12월 8일(주일) III부, IV부예배시
- ◆ 찬양대원 임명 : 12월 8일(주일) I부예배시 가브리엘찬양대 II부예배시 임마누엘찬양대 III부예배시 할렐루야찬양대 IV부예배시 아멘찬양대 찬양예배시 시온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
- 12월 11일(수) I부예배시 호산나찬양대 II부예배시 실로암찬양대 크로마하프연주단
- ◆ 각부 총회
- 권사회 12월 4일(수) I부예배 후 갈릴리홀
- 스데반회 12월 4일(수) II부예배 후 국제회의실
- 남녀전도회 12월 15일(주일) IV부예배 후 본당
- 찬양대 12월 16일 ~ 22일 각 찬양대별
- 교사 12월 23일 ~ 28일 각 부별
- *15일 이후 행사는 다음호(12월 8일자)에 게재.



충현강단

바울의 기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엡1:15~23)

기도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6절에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의 내용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엡1:15)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그 뒤에 따라 옵니다. 이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증했다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와 같은,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이 크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면 그 사랑은 엄격한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랑 없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 나무는 죽은 나무이며, 믿음이 생기지 아니한 사랑이란 마치 나무가 지를 꺾어놓은 것 같아서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에서 행함이라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감사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2. 기도의 내용

에베소서에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1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면서 지혜를 간구하였고, 3장에서는 “너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1:17)

바울 사도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 잘못된 것, 잘해보려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해주셨습니다(롬5:8). 그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있는데,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잘 안보입니다. 영적인 백내장에 걸리면 예수님께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 후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유효적 소명, 혹은 효과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발을 일구며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도저히 살아

다는 자력종교로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본주의적 종교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힘이 합쳐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력종교로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붙잡아주시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력종교에 의하면 구원은 은혜의 산물이니 선행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타력종교입니다.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믿음이라는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올바른 교회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22, 23)

본문에는 올바른 교회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기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할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는데 이 강물이 갈릴리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 물이 다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갈릴리바다는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맑은 물에 수 많은 물고기와 해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에는 물고기도 없는 글자 그대로의 죽음의 바다입니다. 갈릴리바다는 요단강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죽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통하여 물이 들어가기만 하지만 그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도 갈릴리바다처럼 하나님께서 받들 뿐만 아니라 나누어줄 줄 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해바다처럼 받드는 받는데 나누어줄 줄을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중요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만물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이것의 반복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엡1:18)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눈인데 이것으로는 자연만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학문적인 눈, 혹은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고를 하고 학문을 익혀나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이나 학문적인 눈을 가지고는 세상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질학자들이 그 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농부는 그것을 캐내어 큰 재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이 농부처럼 우리 앞에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1:19)

바울 사도는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

1. 성탄절의 기원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일이다. 이러한 기쁨과 축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따로 없었고, 오히려 1월 6일 신현제(神顯節)가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동방 교회에서 축하되었다.

최초의 성탄 축일은 2세기경 5월 20일에 행하여졌다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A. Clemens)가 기록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3세기경부터 그것을 12월 25일에 행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가 이날에 탄생했다는 증거는 없고 단지 전례상 그날로 정하였을 뿐이다. 기독교의 여러 종파 중에는 청교도와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풍습을 이교도적인 기원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에서의 의식은 거의 대부분의 종파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의 이야기는 신약성서의 누가복음을 비롯한 몇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2월 25일로 새롭게 선정된 날은 동지(冬至)가 1년의 변환기로서 생활과 활동을 준비하는 때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근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때 행해지는 민족적인 행사에는 각 나라의 고유한 풍속과 접목되어 다양하게 전해져 내

총헌논단

성탄절의 기원과
현대적 의미

송태근 목사

(제1교구, 고등부 지도)



려오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풍속도 고대 로마의 유품이다. 중세기 및 그 이후의 크리스마스에서 본뜬 행사나 전설은 매우 많으나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요리 이외에는 대부분 잊혀졌다. 이밖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난로가에 있는 아이들의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놓고 간다는 이야기는 유럽 각국에 흡사한 형태로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2. 요즘의 성탄절

우리 나라 어린이들도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오색 장식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내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에서 전해진 것이며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날 밤 교회에 모여 연극이나 찬양을 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몇몇이 무리를 지어 집집마다 돌며

찬양을 하는 새벽송을 하기도 한다.

또 요즘 들어서는 크리스마스 축하 발표회 때 분장을 한 산타클로스가 직접 등장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두려운 존재이다.

아무튼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성탄의 의미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 즉 성탄의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비신자는 물론, 신앙인조차도 흔하지 않다. 사회에서는 단지 성탄절이 거리의 스피커에서 '징글벨' 소리의 요란스러움, 밤이면 연인들이 만나는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연애의 날 정도의 인식이 고착되고 교회조차 십야예배나 예술의 밤 정도를 치르어내며 지나치는 절기적 행사일 때가 많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은 이제 먼지 쌓인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고, 추운 거

울 밤하늘에 수없이 널려진 붉은 형광 십자가는 전기 코드만 뿔뿔히 꺼져버리는 구조물로 전락해버렸다.

3.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렇게 광장한 축하와 장식 속에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환영한 것도 물론 아니다. 오히려 여관에 들어 가려해도 자리가 없어서 난감할 때에 말의 구유에 누이셨다.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센터멘탈한 것도 아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쉬고 있는 곳과 양이나 말이 쉬는 장소가 우리의 환경과 개념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옆으로 마루가 없으면 거기에도 짚을 깔든지 해서 짐승들을 거기서 쉬게 하곤 한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제대로 방에서, 또는 찬란하게 장식을 한 좋은 자리에서 환영받았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이때의 상황이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놀라운 계획과 그 진행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에 감사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은 그분의 약속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겨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둘째는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손 쉽게 구원의 역사를 해치우신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시간 속에서 치르어야 할 모든 과정과 또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주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관이나 통증을 제거하는 마취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자로서 치르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과정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이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와 승천까지를 인생으로 오셔서 겪으며 살다가신 예수님의 뒤를 조금이나마 따르는 신자의 자세인 것이다.

유난히 힘겨웠던 한 해를 매듭지으며 다가오는 성탄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처럼 가난하고 어두움에 놓여진 우리의 이웃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뜻 깊은 성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장로칼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훈 장로
(대학부 부장)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며 지난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새해와 연말이라는 시간을 제정하셨습니다. 새해를 앞에 놓고 교회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991년도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므로 거의 제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겨울 앞에서 자신을 보듯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난 삶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난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회개를 안할 수가 없으며, 후회없는 생활을 했다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들 편에서

나 하는 말이지 전지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그 직분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일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일꾼, 교회 일을 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서 일하는 일꾼, 자기 뜻에 맞는 일이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조금만 자기 뜻에 안맞으면 불평을 하고 자기 고집과 주장에 열을 올리는 일꾼, 자기 위치와 분수도 모르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일하는 일꾼, 다른 사람이나 부서는 어찌 되든지 내 부서만 잘되고 부흥하면 그만이라며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일꾼, 남이 한 가지 일을 하면 두, 세 가지 일을 벌려야 직성이 풀리는 비교 의식에 빠진 일꾼, 자기 때문에 부서가 어렵고 힘이 드는데도 모든 책임을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일꾼,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교회 일을 우습게 여기는 배신양적인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일꾼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말로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 자신 십자가를 나도 지

지겠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수 없이 고백하고 기도하였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짓되이 살아 왔으며 나름대로는 이유와 핑계가 있고 여러가지 변명도 늘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불합격자인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책망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새해에도 또 일꾼으로 써주실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새해에는 금년이나 지난 과거의 생활보다는 어쨌든 달라지고 변화받은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위에 굳세게 서서 성령이 인도해주시는 바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시다.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만을 따라갑시다. 기쁨 떠나 어려움 떠나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나의 모든 것은 다 뒤로 접어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랑과 화목을 심는 책임을 다합시다.

다음호 칼럼은 정운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3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붙잡고 부산 초량교회에 나갔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할머니께서 일생 동안 눈물을 뿌리시며 기도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3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대학교 1학년 세례를 받을 때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물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재미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하던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니까 교회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신앙이 없는 상태였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였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무디어졌다. 그 때는 톱스타가 되어 돈과 명예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만 불렀는데 심지어는 일본으로 가서 레코드를 취입하기까지 하였고 그곳에서 대단한 인기도 얻게 되었다.

인기를 많이 얻으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내 생활은 점점 힘들고 비참하고 고달퍼져갔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박수갈채를 받고 화려한 것 같지만 컴컴한 아파트에 돌아와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집 생각과 가족 생각으로 외롭기만 하

간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성애 집사

었다. 일본에 가기 전 아는 분으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교제를 하던 중 그 사람은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고 저는 노래하러 일본으로 갔다. 막상 인기를 얻고 보니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무척 행복하리라는 생각으로 일본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북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하하여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셨다. 사랑하는 손녀딸이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고 교회도 안가니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교회 나갈 것을 계속 권유하셨다. 믿지 않는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는 교회에 갈 수 없으니 미국에 가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길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교회 나가려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첫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편지가 왔다. 그것을 받고나니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 미국으로 떠나올 때 하염없이 우시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할머니를 위하여 효도할 수 있는 일이 교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심을 편지에 적어보냈다.

그 후 아는 미국 사람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신앙이 없는 데가다 분위기도 익숙치 않았고 무엇보다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교회를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할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지금은 국민학교 6학년인 아들이 그때 뜨거운 국에 전신을 데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상처 부위를 긁어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머리에서부터 피가 줄줄 흐르는데 내 평생 그렇게 마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신앙은

없었지만 낮은 곳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남편과 저는 괴로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

집에서 한 시간쯤 가면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시장을 보러가게 되면 가끔 들리던 곳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알려 심방을 와주셨다. 사실 전에 그 목사님께서 집으로 심방오신 적이 있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쌀하게 대하였다.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으며 사모님과 함께 우리 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주셨다.

아들을 퇴원시킨 후에는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한번은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만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이 열린 상태였다. 강사님께서 오 늘밤 자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감히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서만이 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셨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았다. 강사님의 인도에 따라 손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시인하고 드디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 가끔씩 세상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야 할 자리에 돈이나 인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미개한 나라로 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나의 생각이 바로 사치이고 허영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92년도 신임 남녀서리집사 명단

남집사

갈병준, 강구봉, 강만홍, 강봉기, 강예모, 강태욱, 고찬석, 구자승, 구창희, 권길동, 권영목, 권영일, 권중철, 김광만, 김남재, 김명윤, 김성태, 김석근, 김성욱, 김수일, 김승기, 김영길, 김영민, 김영암, 김영준, 김영중, 김영호, 김운섭, 김원규, 김은철, 김을필, 김의수, 김인관, 김인규, 김인준, 김종권, 김종규, 김종규, 김종일, 김종춘, 김종학, 김진오, 김창남, 김창복, 김준민, 김태홍, 김현설, 김형덕, 김홍찬, 김환호, 나중민, 라성찬, 류중요, 문호용, 문효식, 박광식, 박규연, 박래준, 박명덕, 박명수, 박명덕, 박석두, 박선홍, 박시준, 박용술, 박용환, 박용호, 박정만, 박중운, 박필래, 박호걸, 배봉식, 백남식, 봉태열, 서순석, 소재철, 손영섭, 손정오, 손종원, 송삼규, 송영성, 송영준, 송인호, 송지호, 송효준, 신덕일, 신원동, 신현호, 안선광, 안용현, 안중탁, 안진섭, 안희정, 양복동, 양세우, 염낙서, 예정호, 오경록, 오현규, 유동호, 유용규, 유재훈, 유동인, 윤석민, 윤우선, 윤종국, 윤천하, 이관호, 이광필, 이기용, 이기환, 이덕희, 이동욱, 이명규, 이매주, 이병

진, 이산영, 이상호, 이승구, 이승우, 이영식, 이용열, 이원상, 이원영, 이의석, 이인배, 이재송, 이정관, 이정근, 이정식, 이진호, 이창권, 이학봉, 이해철, 이호영, 인대진, 임광진, 임인호, 임현장, 임희준, 장동영, 장석순, 장인희, 전세종, 전종일, 정관용, 정내영, 정대은, 정문호, 정병국, 정부조, 정세형, 정승진, 정승훈, 정용환, 정재운, 정조영, 조성훈, 지성광, 지성철, 차정각, 채홍표, 최광철, 최규한, 최남희, 최만우, 최상기, 최수영, 최원일, 최은호, 최일평, 최중배, 최주환, 최중욱, 최진성, 최창준, 하유복, 한경무, 한민수, 한병구, 한석봉, 한영태, 한용택, 함용식, 허재창, 홍석표, 홍정선, 홍탁성, 황호철(총189명)

여집사

강기옥, 강석주, 강수분, 강춘희, 고경숙, 공인화, 광기영, 구부희, 권귀옥, 권영자, 금미선, 길인숙, 김경련, 김경숙, 김경옥, 김경옥, 김정은, 김경혜, 김달수, 김명선, 김명숙, 김명자, 김명화, 김명희, 김명희, 김미애, 김미자, 김복순, 김봉숙, 김선옥, 김선희, 김성도, 김성숙, 김세자, 김숙자, 김순남, 김순덕, 김순애, 김순이, 김숙자,

김승아, 김애영, 김양자, 김여숙, 김영선, 김영숙, 김영정, 김옥기, 김옥순, 김옥순, 김옥희, 김옥숙, 김옥숙, 김월매, 김월선, 김운자, 김은숙, 김은영, 김은자, 김인자, 김자애, 김재순, 김점능, 김정란, 김정숙, 김정순, 김정식, 김정화, 김정화, 김종녀, 김종수, 김주옥, 김지현, 김진자, 김청순, 김충선, 김하경, 김학선, 김학인, 김향신, 김현숙, 김화옥, 나순애, 나입자, 남미희, 남순자, 남영자, 남인희, 동명희, 동지현, 류옥순, 마현미, 문인숙, 문현옥, 문현정, 민병숙, 박경애, 박광순, 박귀자, 박명란, 박명순, 박문순, 박분옥, 박선옥, 박성열, 박성희, 박순희, 박순애, 박애실, 박양자, 박연옥, 박영숙, 박은조, 박임순, 박정란, 박정숙, 박정애, 박종은, 박종임, 박지현, 박찬숙, 박창숙, 배미영, 배복자, 배연식, 백근녀, 백소현, 백은실, 백희숙, 서경희, 서금순, 서기순, 서해경, 서해덕, 손명희, 손영희, 손학선, 송금옥, 송선월, 송영록, 송옥진, 송옥현, 신귀숙, 신정자, 신은숙, 신정임, 신종연, 심금숙, 심영보, 심영순, 심재선, 심정자, 안성숙, 안선자, 안숙영, 안순복, 안옥자, 안옥자, 양명옥, 양백주, 양하선, 엄진이, 여갑선, 여정남, 연경애, 염혜옥, 오경희, 오길자,

오명자, 오영숙, 유기림, 유순덕, 유은옥, 유인순, 유재옥, 유정자, 유추남, 유혜선, 윤부기, 윤 순, 윤재순, 이경숙, 이경숙, 이경임, 이경희, 이경희, 이명숙, 이명옥, 이무강, 이무순, 이문표, 이민숙, 이봉순, 이선화, 이성애, 이순자, 이신자, 이애자, 이연순, 이영선,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윤경, 이은복, 이은순, 이인숙, 이자경, 이정남, 이정옥, 이정옥, 이정자, 이준희, 이현순, 이현숙, 이현주, 이화열, 이희순, 이희주, 임경옥, 임귀순, 임길영, 임난향, 임도화, 임수자, 임영신, 임은자, 임진옥, 임현진, 임혜경, 임희순, 임희춘, 장보운, 장복래, 장세정, 장영선, 장윤영, 장정연, 장정자, 장철자, 장현순, 장희숙, 전순정, 전영아, 전윤숙, 정귀애, 정미순, 정복순, 정성숙, 정숙희, 정순덕, 정순옥, 정순자, 정은선, 정은숙, 정임순, 정정수, 조명자, 조미자, 조숙영, 조순덕, 조연숙, 조영선, 조유키, 조윤수, 조임선, 조주자, 지은자, 차장호, 차 희, 채자연, 최경애, 최명희, 최상근, 최상여, 최수자, 최순희, 최영옥, 최영옥, 최인선, 최현인, 최혜숙, 한경화, 한순임, 한오례, 한필양, 허순자, 허인순, 현명희, 홍영숙, 홍원실, 홍혜원, 황명숙, 황영림, 황지희(총296명)

예배안내위원 모집

예배위원회는 예배 시간에 봉사할 안내위원을 모집한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집사면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이 직분에 많은 성도들의 지원이 요망된다.

한편 오는 19일(목) 저녁 7시에 갈릴리홀에서 예배안내위원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에는 현재 봉사하는 위원들 외에도 내년도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중등2부 장학성경퀴즈대회 8일에 갖기로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안경소 목사)는 오는 12월 8일 장학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서 묵상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범위는 사사기와 사도행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입상한 학생들만이 출전하여 지혜를 겨루게 된다.